

우리 문화에서의 상담자상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백인 중산층(WASP)을 겨냥한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들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다문화적 상담이 제4의 세력으로 잡아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제 우리 문화에 걸맞는 상담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주요 상담접근 중 정신분석은 지나치게 심리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중심 상담은 개인주의 사회의 가치인 자기실현에 역점을 두었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서구적 개념에 입각한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적 가치와 마찰을 일으키는 점이 있다. 한국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며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나'보다는 '우리'와 위계를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에 대하여서도 서양인들과는 달리 교사와 같이 지도편달을 해주는 상담자상을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상담자는 어른으로서 교육적 차원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문화권에서 어른의 주된 역할은 자녀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양육하기보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화합 즉,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부모의 태도는 애정적-허용적인 것보다 애정적-규제적 자세가 더 요구된다. 이렇듯 상담자는 제2의 부모로서 엄부자모의 모습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와 수용뿐만 아니라 도전과 직면을 위해 상담자는 필히 객관화된 검증력을 지녀야 한다.

주요어 : 수직적-집단주의, 애정적-규제적, 객관화된 검증력

장성숙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장 성 숙,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2-340-3274 E-mail : changss312@hanmail.net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신학문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서양의 문물과 함께 도입된 상담 및 심리치료는 봉건적 분위기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점차 사람들은 '나'라는 개체의 소중함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동안 도외시했던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 때는 '대화'나 '만남'이라는 단어들에 대학가의 게시판에 어지럽도록 풍미되던 시절도 있었다. 덕분에 상담이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일환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그리 낯설어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가 점점 익숙하게 다가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 문화의 구성물인 그것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적절한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장성숙, 1999).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일컬어지는 백인 중산층의 문화에 근거한 서양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을 극동지역인 우리나라에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생겨난 상담 및 심리치료를 문화가 다른 동양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따르는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상담분야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도 기존의 접근들이 다수민족인 백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나 타민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겨났다(Sue & Sue, 1977). 유럽 계통의 백인을 위한 접근을 동양계나 남미계통의 소수민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된 것이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교문화에 입각한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Casas, Ponterotto, & Gufierrez, 1986; Copeland, 1983; Sue, 1992). 그리하여 오늘날

다문화주의적 상담은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의 뒤를 이어 제 4세력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영향력을 떨치며 상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Midgett & Meggert, 1991).

이러한 상황 즉, 서양의 산물을 동양인 우리나라에 직수입해 적용하는 것에 대한 회의 때문이든 아니면 세계적 추세인 다문화적 상담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든, 이제 우리는 한국 풍토나 정서에 입각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에서 이동식(1986)의 道道 정신치료, 윤호균(2001)의 불교적 상담, 최상진(1999)의 심정치료 등은 한국적 상담의 토착화에 대한 일환이라고 본다. 필자도 서양의 상담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전통이나 토양에 맞는 상담접근을 개발해야한다는 취지 아래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현실역동 상담을 제안한 바 있다(장성숙, 2000).

본고에서는 우선 상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접근들이 우리 문화권에서 어떤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우리문화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모역할과 상담자의 역할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담자상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상담의 변화 양상

내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아마 이 계통만큼 다양한 학파나 견해들이 난무하는 곳도 드물 것이다.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지난 30~40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새로운 접근들이 소개되었다. 1960년대에는 60개 정도의 접근들이 소개되었고, 1970년대에는 130개, 1980년대에는 250여 개가 넘는 접근들이 나타났다(Kazdin, 1986). 일설에 의하면 400여 개가 넘는 접근들이 소개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던 이러한 추세가 한풀 꺾이면서 유사한 것들을 유목화 시켜내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유목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다문화적 상담론이 미주지역에서 제기된 이래 이제는 각 국가마다 고유문화에 걸 맞는 나름대로의 접근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왕성한 생성과 소멸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추세는 각기 다른 이론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접근들이 서로 점점 근접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대다수의 상담자들이 단일 접근만을 고수하던 과거와는 달리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어느 학파에 속한 기법이든 기꺼이 사용하는 통합적이고 질중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실용적 추세에 힘입어 내담자의 문제가 개선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도전을 받았고, 또한 현실적 여건상 점점 장기상담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상담을 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매우 성급해졌고, 거기다 상담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단기상담의 대상자들이다. 실제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20%정도가 상황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단기상담 내지는 위기개입을 필요로 하고, 약 2% 만이 임상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사람들이

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지닌 문제가 단기상담을 하기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접할 때 상담자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중립적인 자세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통찰지향의 정신분석적 치료 또는 내담자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인간중심 상담이나 적합한 것이지 상담을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곤란하다.

더구나 21세기는 정보화 및 첨단과학기술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메시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상담 및 심리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많은 상담자들은 현실적 흐름에 부응하기보다 여전히 고전적인 완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내담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겨냥하거나 그 자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다. 다분히 우회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상담자들이 그동안 의거해 왔던 기존의 이론들은 2% 내외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신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립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근간으로 삼긴 하되 내담자 내·외의 여건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현실성이 결여된 상담자의 미온적인 태도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취하게 되는 행동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생겨날 정도다.

기존의 상담자 역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풍토와 내담자들

의 요청에 힘껏 부응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상담 및 심리치료들이 우리 문화권에서 어떠한 마찰을 야기하는지 간략히 정리해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원하는 상담자상을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그동안 시행하던 주요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들이 이론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우리 문화권에 썩 잘 들어맞지 않는 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는 내담자가 적응해 살아가야 할 주변 풍토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실제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활용가치는 떨어지고 만다.

정신분석적 치료

우리나라 상담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접근은 정신분석에 근거한 정신역동 치료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아동기 감정양식을 비롯한 성장사에 역점을 두고 있듯이 정신역동적 개념들은 대중화되었다. 이곳에서의 주된 치료목표는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개인의 성격구조를 수정하거나 욕구를 제어하도록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전이를 강조하는 이 접근에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논의하고, 해석하며, 자기이해를 수립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 접근에서의 상담자 태도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자의 기본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보다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를 거쳐왔다. 초창기에는 치료자가 중립적인 자세로 전이대상이 되어줌으로써 치료를 했고, Sullivan은 참여자-관찰자(participant-observer)라는 이중역할을 강조하

며 굳이 치료자의 익명성을 고집하지 않았고, Alexander와 French는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접근방식에 개혁을 가져왔고, Dewald는 지지치료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뒤이어 수많은 사람들은 단기치료를 강조하면서 치료자가 보다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상담비 지불이 제 3자 지불로 대체되는 사회흐름 때문에 장기치료를 받는 비율은 상담 전체 인원의 1~2%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미국의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아직도 중립적 태도로 내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내담자의 문제를 다룰 때 유년시절의 대상관계가 상담자에게 투사되도록 하여 그것을 교정시키는, 즉 아직도 전이를 다루는 식의 전략을 습관적으로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접근에서 상담자는 한 개인의 심리내적(intrapsychic) 갈등에 비중을 지나치게 둔 나머지 관계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풍토를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대부분의 문제는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갈등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내면세계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경우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중심 상담

인본주의의 대표주자인 인간중심 상담은 전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덕분에 체면이나 형식에 치우쳤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소중함을 알았고 공감의 위력에 눈을 떴다. 특히 정신분석과 행동치료에 대한 반동으로 출발해 치료 관계라는 체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이 접근은 내담자가 지닌 잠재력을 믿었고, 그것의 발현을

최대의 과업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증상 자체보다 자발적인 삶을 살도록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담자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내담자는 성장을 방해하던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자기 실현을 향해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어떤 전문지식보다도 상담자의 성숙한 태도가 우선한다는 Rogers의 주장은 매우 파격적이었고 상담의 대중화를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상담자가 보이는 수용적 태도를 이제 어떤 상담접근에서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내담자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오로지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상담자 역할의 전부인양 잘못된 인식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사실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 받으면 실존에 대한 책임감이 돌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아름다운 이상에 가깝다. 대개의 경우 내담자는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간여해주지 않으면 내담자는 병리적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것은 때에 따라 존중이라기보다 방임일 수 있어 현실적으로 위험하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서양사회와는 달리 감정에 대한 솔직함을 다른 것에 우선하지 않을 뿐더러, 위·아래를 알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눈치와 절제가 강조되는 사회이다. 그리하여 '나'라는 자기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이 접근의 철학은 '우리'라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종종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실제에서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내담자를 돕기보다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더 큰 갈등에 놓이게 할 우려가 있다.

인지행동수정 치료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며 비교적 최근에 확산된 인지적 접근에서의 상담자 태도는 정신분석적 치료나 인간중심 상담에 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이다. 특히 REBT에서의 상담자는 직접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며, 태도변화의 결정적인 요인을 인지적 요인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곳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일종의 교육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치료자는 교사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덕분에 그동안 상담에서 금기시 했던 지시, 설득, 논박, 충고 등이 쓰이면서 상담의 영역은 훨씬 넓어졌다. 이 접근에서는 치료자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자칫하면 내담자의 의존심이나 탐닉현상을 빚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상담자의 직설적인 태도도 그것이 내담자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일 때는 얼마든지 좋은 치료조건이 된다고 했다(Wessler & Wessler, 1980). 그리하여 이제는 상담적 접근과 비상담적 접근을 구분 짓던 과거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상담이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그 이상이라는 견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접근에서 강조하는 합리적 사고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서구사회에서의 합리성을 한국인 내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접근에서는 내담자의 개인사와 감정을 도외시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비합리적 사고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생길만한 여건에 의해 나타난 것이므로 원인을 모르고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단지 억압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담자는 중국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되풀이되는 증세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따라서 정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성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情)과 한(恨)의 존재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감성적인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감정을 소홀히 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아무래도 영향력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인의 행동 특성

우리의 문화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유·불·선(儒·佛·禪) 사상에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양사회와는 여러 면에서 기준이나 가치의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사회심리에서의 비교문화 연구에 따르면, 문화차이를 재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양과 서양에 대한 비교 문화 틀로서 가장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이라고 한다(Triandis, 1996; 1995; Triandis, McCusker, & Hui, 1990). 이러한 차원이 서양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편에 따라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동서의 문화를 분류하는데 이 기준은 여전히 일반적이고 유용한 편이다(한규석, 1997). 더구나 수직 수평 차원의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집단주의-개인주의 개념은 문화를 비교하는데 그 어느 기준보다 월등하다(Triandis & Gelfand, 1998).

동양에서도 극동지역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문화는 서양의 문화와 다른 점이 많다.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로 '개인'을 받아들이나 아니면 '집단'을 받아들이나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분류한다면, 우리 문화는 확실히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조궁호, 1993; 조궁호, 김은진, 2001).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독립성, 목표, 자율성, 자기실현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하며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유지를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도 자기 주장이 뚜렷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서구문화의 이상형과는 달리 자기를 절제하며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겸양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 문화로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도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최상진, 1997a; Choi, 1998).

보다 구체적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집단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이수원, 1996). 첫째,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둘째,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베푸는 면에서 탄력적이며 또한 상대방도 자기에 그와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를 중요시하는 체면의식이 강하고 배척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소속된 내집단에게는 친밀하게 행동하지만 외집단에게는 배타적이다. 다섯째, 집단 결속력이 강하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어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크다. 여섯째, 도덕이나 규범이 구체적이며 상황에 따라 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엄격하며 구속력도 강하다. 일곱째, 유보적 표현을 미덕으로 삼으며 분위기에 따라 말을 아끼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식이 타협적이며 의례적인 경향을 띤다. 여덟째, 특히 내집단원과의 갈등을 피하려하며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무나 책임에 호소하는 방법을 쓴다. 아홉째, 정서나 동

기의 발현이 타인중심적이어서 개인적 감정이나 욕구의 표현을 통제하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 열번째, 이상적인 인간상을 능력보다 인격에 근거해 설정하기 때문에 관계적 요소로는 자조, 자율, 독립, 공정, 자유보다 화목, 인화, 의리, 겸손, 충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바람직한 자질로는 창의, 성취, 개성, 도전보다는 성실, 인내, 노력, 절제 등을 꼽는다.

집단주의 문화에 따른 이러한 구체적 특성 이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의 어느 인종보다 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혈족 중심의 가족주의 집단문화를 이루고 있다(안신호, 1999).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관계는 '정'과 '우리성'을 바탕으로 한 심정을 주축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의식 저변에 깊숙이 깔려있어 집단 내에서도 위계를 중요하게 여긴다(이효재, 1994).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교적 영향으로 수직적 집단주의 특성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서양인들과는 다른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상담 및 심리치료가 다른 무엇보다 생명체 자체가 지닌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것의 확립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상담의 기본적인 틀은 어느 문화권에서든 동일하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그러한 기본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사람은 사회적 속성을 지닌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이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규범이나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이것의 부재로 문제가 생겨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소속해 있는 그 집단의 사회적 가치에 필히 눈을 떠야 한다. 왜냐하면 적응

적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가치체계를 내면화 해 실행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담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기존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서구의 문화적 구성개념인 상담 및 심리치료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이러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길러 자기실현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 생소함을 느끼며, 대개의 경우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답이나 조언을 구하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상담 장면에서 서양인들은 본인들이 주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자가 이끌어 진행해주시기를 바라는 경향이 짙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문화의 산물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무슨 목표를 향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전제 하에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식이 희박하다. 이렇게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관점이 우리사회와 서구사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그동안 상담자들이 그래왔듯이 '상담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애써 내담자의 태도를 바꾸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오히려 내담자의 그런 태도가 우리의 현실이니 만큼 상담자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내담

자가 상담자에게 맞추도록 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내담자들은 서양의 내담자들과는 달리 상담자가 자기에게 조언이나 지도를 해주는 어른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과거에는 내담자의 이러한 태도를 의존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을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새롭게 조망하여야 한다(장성숙, 2000).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기대나 태도를 더 이상 서양인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설사 내담자의 태도가 겸손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의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직은 의존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의 수준이라면, 상담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응석받이로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지도를 해주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게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의존을 해야할 정도로 미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독립적이고자 한다면 오히려 바로 그것이 병폐이기 때문이다.

서구문화에서는 의존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는 겸양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차별적 관계문화를 지녔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차별적 관계로 간주하는 우리의 문화는 그 유래가 깊다.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구심점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관계를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더욱 견고해졌다. 따라서 어른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권위로서 그 기능을 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배가 위인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나 학식 여하를 막론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전통이다.

상담자를 대등한 선상에 있는 전문가로서 여기는 서양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스승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어른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나름대로 상담효과에 기여하는 면이 꽤 있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효과는 상담자에 대하여 갖는 신뢰나 존경과 비례하기 때문에 상담자를 어른으로 여기고 따르는 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이기도 할 뿐더러 상담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렇게 상담자가 뭔가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는 우리나라에서 상담자가 적극적인 개입을 삼가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즉, 내담자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상담을 하면 내담자는 뭔가 석연치 않아 하며 쉽게 탈락하곤 한다. 시급한 문제를 지닌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미온적인 상담과정을 흡족하게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는 부모와 스승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공경하는 전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성을 다루는 상담자를 부모와 스승의 대열에 놓고 동시에 그에게서 부모와 스승의 역할을 기대한다. 즉 상담자는 일찍이 부모나 스승이 못다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신중 전문직의 어른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명확한 사회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내담자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안내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지침이 될 사회관은 그 사회의 풍토나 정서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상담자는 교정을 목표로 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담자는 이토록 최종의 위치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존재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상담자들이 이러한 무게를 자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올바른 부모역할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자가 이렇게 어른으로서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선 부모의 역할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른이라는 개념이 지닌 함의는 모두가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양육방식과 서구의 양육방식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어수선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 원래 우리사회는 관계위주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최대 역할은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시켜주면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문화에서의 이상적 인간형은 자기를 절제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부모가 실시하는 양육방식은 자녀를 자기주장이 뚜렷한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녀가 부모의 의사에 따르기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사회의 많은 가정은 전통적인 양육방식과 서구적 양육방식간의 마찰로 갈등을 겪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의견이나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서구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 전통적인 양육방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반되는 견해차이는 부모들의 양육방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교육관에도, 상담자들의 상담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양육방식에서 부모가 어떤 일관성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녀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모든 인간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간의 정체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Goffman, 1959). 이때 서로 어떤 역할관계로서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정체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상호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관계의 유지가 어렵다. 부모가 자식에게 허용적 태도를 보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권위적 태도를 취하면 자녀는 혼란과 반발을 보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예측이 가능하게끔 부모와 자녀간에도 일관된 관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 양육방식에 대하여 분류를 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취하는 태도를 애정수준(애정적-거부적)과 통제수준(허용적-규제적)을 교차시켜 놓으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이수원, 1996). 애정적-허용적, 애정적-규제적, 거부적-허용적, 거부적-규제적으로 분류되는 양육방식에서 앞의 두 유형은 부모와 자식간에 바람직한 관계설정이지만, 뒤의 두 유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다.

네 가지 범주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서양의 양육방식이 애정적-허용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양육방식은 애정적-규제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수원, 1996).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수직적-집단주의에 속하는 사회로서 한국인은 '우리' 속에서 부분자로 살아간다. 이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위 사람들과 화합을 이루며 상호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문화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의 기초는 부모에 대한 효(孝)로부터 출발한다. 자녀는 자기를 낳아 보살펴주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취해야 할 존중을 바탕으로 예(禮)와 도리를 익히게 된다. 즉 자녀들은 효에 대한 내재화를 통해 가족주의의 틀을 마련하고, 장유(長幼)에 대한 사회질서를 습득하고, 위치에 따른 인간의 도리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가장 큰 과업은 자녀에게 모든 관계의 근본인 효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 이때 효를 협의적

개념에서 부모에게 잘 해야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익히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효를 바탕으로 한 관계위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는 그것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회풍조가 인격 중심의 '똥 사람'이 아니라 능력위주의 '난 사람'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한규석, 최송현, 2001).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부모들이 둔감했던 탓이 크지만 교육전문가나 상담자들도 가세해 한몫을 했다고 본다. 한 예로 근자에 범람했던 이상적인 자녀 양육방식은 전형적인 서양문화의 산물로 자녀를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방식이었다. 그동안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또는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등으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온 상담자들은 한결같이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한 적극적 경청, 무조건적 이해, 공감 훈련, 수용적 태도 등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집단주의에서 강조하는 보다 본질적인 '자녀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부모교육'이 득세했던 것이 사실이다(이수원, 1996).

그렇다고 서구의 양육방식을 밀쳐내고 우리의 전통적인 양육방식만을 채택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구문화에 대하여 아무런 여과 없이 흡입하던 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점은 적극 받아들이되, 다만 그것들이 우리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원만한 화합을 이루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서구사회의 개인주의는 지나친 경쟁이나 개인화를 낳아 이기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렸다고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Sandel, 1982). 그런데도 그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별 여과 없이 서구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산업화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가 서구의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사회에도 이미 핵가족화가 불가피해졌고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념이 없다. 이 속에서 자녀들은 방치되었으며 정상적인 애착형성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훈육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숨이 가쁘도록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구나 조기교육 열풍으로 아동의 정서적 욕구는 도외시 당했으며 결과위주의 성적만이 초미의 관심거리가 된 상태다(홍강의, 1995).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삭막함에 대한 반동으로 보상적 차원에서 제시된 대안이 바로 아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서구의 민주주의적 '부모교육'이 아니었나 한다. 그런데 이것 역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개인주의 사회의 가치에 근거한 교육관인 것이다. 여기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소홀했다. 그런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사고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 전에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기보다 부모가 상당부분 관여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가 지닌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양육방식에

대한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공부만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주는 허용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다 사춘기 이후 진로나 이성교제 등 큰 문제에 있어서는 갑자기 부모의 의견을 관철시키려하니 자식들이 역할의 혼돈을 겪게 마련이다. 이러한 비일관적이고 부조화된 양육방식에 의해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오늘날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면서도 '우리성'을 지키도록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부모와 자식간의 일관된 정체협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권위가 되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부모의 위신은 양육의 효과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 또한 올바른 부모로서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있다.

부모역할과 상담자상

오늘날 우리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로 인한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성취위주의 경쟁 제일주의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가 되면서 정신건강은 더욱 황폐해진 때문이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다양한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전수 받으며 성장하는 반면, 핵가족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핵가족에서

의 양부모가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녀가 받는 피해는 매우 심각해진다.

특히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던 우리사회에는 가정교육이 능력위주의 교육에게 자리를 내어 준지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부재 현상을 맞이하여 방황하고 있다. 범람하는 불건전한 사회환경, 입시위주의 학교풍토, 삭막한 가정환경 등으로 청소년들은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상담자를 찾는 사람들이 표출하는 문제는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든 허약한 바탕에서의 총체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상담자는 일단 내담자가 호소하는 현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는 하되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상담자는 그들이 지닌 총체적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기초를 다지며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 치료 이상의 양육 및 교육 차원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다. 여기서 어른의 역할이란 제 2의 부모로서 인성을 다듬어 주는 스승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올바른 부모상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를 꼽는다. 이상적인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엄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상같은 호령도 할 수 있는 엄한 모습이어야 하고, 또 보살핌이 필요할 때는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이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태도를 이상적인 부모상으로 꼽고 그것을 어른다운 어른의 표상으로 삼는다면, 상담자 역시 어른으로서 그러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계에서 활동하던 상담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경우, 미

성숙한 부모나 조야한 환경으로부터 받은 내담자의 상처가 우선 치유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담자의 공감적인 태도가 지닌 순기능적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허약한 사람에게는 상담자의 지지적인 태도가 큰 위료가 되어 여유를 되찾게 하곤 한다. 그러나 이때 상담자의 태도가 반듯이 온정적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확하게 헤아리며 가해지는 설명이나 직시가 수반되면 감정의 용해는 훨씬 빠르게 촉진되기 때문이다.

사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제에서 내담자는 중국적으로 감정이 풀려야 비로소 태도변화를 일으킨다. 그만큼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며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수용적인 태도로만 표현될 경우, 내담자는 증상을 털고 일어나기보다 증상이 제공되는 2차 이득이나 자기의 고정된 사고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 식의 틀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해주는 것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냥 수용해주시기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내담자가 어느 정도 자아의 힘을 지녔다면, 합리성이 전제된 자극이나 도전을 능히 소화해 내곤 한다. 대개의 경우,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따라서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상담자의 능력이고 또한 책임이라고 여긴다. 바로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상담자는 한정된 범위의 기법에 안주해서는 곤란하다. 즉

내담자가 자신의 틀에서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상담자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도전을 피하는 상담자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내담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담자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를 더욱 신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기에 여념이 없는 ‘부모교육’을 지양하고 우리 전통에 입각한 규범을 심어주기 위해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상담의 초점화를 한 개인의 내·외 통합에 두느냐 아니면 대외의 역할에 두느냐로 구별지어 본다면, 우리사회에서는 후자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부모역할이 애정적이면서도 규제적일 때 자녀에게 우리사회의 가치관을 익히게 하여 보다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듯이, 상담자 또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어른인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자모와 같은 어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담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때 상담자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일로서 당면 문제에 대하여 객관화된 검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어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모의 정성과 권위가 있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두 사람간에는 신뢰의 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상담자는 다른 무엇보다 객관적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의든 타의든 어떠한 형태로든 검증은 받게 마련이고, 그것이 사회생활인 것이다. 즉 내담자가 관계의 복합체인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객관화된 검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합리성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상담자의 처방이나 개입이 내담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화된 검증력을 얻기 위해 상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사회의 보편적 상식이라고 본다. 상식이란 상호 편안할 수 있는 공존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식을 바탕으로 한 객관화된 검증을 통해 그 사회의 거울이 되어줄 때 상담자는 업무자모와 같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역할이야말로 바로 우리문화권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자상에 부합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정립은 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전문영역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길이 아니까 한다.

참고문헌

안신호 (1999). 한국적 집단주의에 관한 동기-자아 개념-행동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21-164.

윤호균 (2001). 공상, 집착 그리고 상담: 상담접근의 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18.

이동식 (1986). 상담의 동양적 접근. 한국 대학카운슬러 협회 (편). *상담의 이론과 실제* (pp. 315-327).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수원 (1996). 올바른 부모역할, 올바른 자녀역할: 비교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14, 1-23, 서울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호재 (1994). 이데올로기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조공호 (1993). 대인평가의 문화적 차이: 대인평가이원모형의 확대시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4-149.

조공호, 김은진 (2001). 문화성향과 동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39-165.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1(2), 19-33.

장성숙 (2000). 현실역동 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최상진 (1997a).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발표논문집*, pp. 131-143.

최상진 (1999). 그 당위성, 이론적 배경, 과제 및 전망. *한국심리학회 하계심포지움 문화와 심리학*, pp. 1-20. 8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제2인문관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한규석 (1997).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 비교 연구: 심리학에서의 비교 문화연구. (pp. 87-172). 서울: 성원사.

한규석, 최송현 (2001). 한국인의 사람 판단차원: 된 사람과 난 사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p. 229-234.

홍강의 (1995). 위기에 처한 부모역할과 아동양육. *정신치료*, 9(1), 43-55.

- Casas, J. M., Ponterotto, J. G., & Gufierrez, J. M. (1986). An ethical indictment of counseling research and training: The cross 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anuary, 64, 347-349.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 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opeland, E. J. (1983). Cross-cultu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historical perspective implication for research and train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2(1), 10-15.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Kazdin, N. E. (1986). Comparative outcome studies of psychotherapy: Methodological issues and strateg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95-105.
- Midgett, T. E. & Meggert, S. S. (1991). Multicultural counseling instruction: A challenge for faculties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1), 136-141.
- Sandel, M. J. (1982). *Liberalism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e, D. W. (1992). The challenge of multiculturalism: The road less traveled. *American Counselor*, 1(1), 6-15.
- Sue, D. W. & Sue, D. (1977) Barriers to effective cross-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20-429.
- Triandis, H.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s.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 view Press.
-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06-1020.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Wessler, R. A. & Wessler, R. L. (1980).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rational-emotive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 원고접수일 : 2002. 5. 6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8
게재결정일 : 2002. 9. 7

The Counselor Character Desired in Korean Culture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e are still following in the steps of the sever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ories for the Western, in particular for white man of middle class. In as much as multicultural counseling is becoming the fourth forces in this field at this time, the counseling theory which is suitable with the Korean has to be explored. Among the maj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ories, psycho-dynamic approach makes too much of intra-psychic conflict rather than interpersonal problems, person-centered approach lays emphasis on the self-actualiz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Western society,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stresses the rationality based on the Western culture. Thus these approaches make trouble with Korean culture which is based on vertical-collectivism. The Korean expect that counselor serves as a teacher as well as a therapist to let a client know familism and grade of rank which are stressed in our culture. For that reason, a counselor should play a role as an elder (an experienced and wise man) who can coach and guide a client. Becau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quite important in our society, a role of proper parents is to make children good members of the community with an affectionate-disciplinary attitude rather than an affectionate-permissive one. And also a counselor should have objectified norms to exert an effect upon a client.

Key Words : vertical-collectivism, affective-disciplinary, objectified norms